

SCENE 6

(나레이터가 시작하면서 불빛, 조명이 차츰 어두워진다.)

나레이터 1 : 묵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촛불 경화자가 불을 붙이지 않은 작은 촛불 가지고 중앙 테이블 앞으로 걸어와 대거한다. 경화자는 중앙 테이블 앞에서 가지고 온 촛불 가운데 타고 있던 촛에 불을 붙여 경화한다.)

나레이터 2 :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시작되었죠. 하나님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메시야의 출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경화자가 회중 앞에 선다. 그리고 손에 있던 촛불을 회중들을 향해서 내린다.)

나레이터 3 : 지금 우리는 이 빛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시다. 메시야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의 빛을 비추시다!

(‘빛을 맞으라!’의 서주가 시작되면, 촛불 경화자는 회중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한다. 촛불을 경화한 후 앞 사람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들의 촛불이 커지도록 한다. 교회의 규모나 회중의 규모에 따라서 촛불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미들을 배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회중의 모든 촛불들이 경화되었을 때, 촛불 경화자는 성가대로 돌아간다. ‘빛을 맞으라!’의 끝 부분에서, 바로 ‘예수, 세상의 빛’(만복구 부분)으로 넘어간다. 회중들은 성가대와 함께 마지막 합창을 부르며 일어서 세상의 빛을 경화하는 초대와 함께 곡은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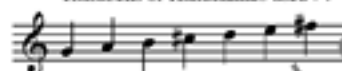
빛을 맞으라

Take this Light
(Chorus with optional Handbells or Handchimes)

Music by Mark Patterson

홍성표 역

2 octaves
Handbells or Handchimes used : 7



With joy! (♩ = ca.72)

Handbells
Handchimes
(optional)

복된 빛을 맞으라 밝게 환히 빛난다

이 세상 모두 비친다 환하게 비친

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13

16

다 큰 사랑 비—친 다

17

19

22

mp

온 세 상 왕 이 되 어 오 신 주 구

mp

25

26

세 주 로 — 오 신 에 수 —

27

30

기쁨의 소식 모두 알려 라 아

32

cresc. poco a poco

기 예 수 — 나 신 소 식 —

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www.vitnara.com

뒷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